

연구논문평가와 SCI 신드롬

홍윤기 한성대 기획실장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대학교수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을 꼽는다. 인문, 사회, 자연, 그리고 공학 등 전 학문분야에 걸쳐서 과거 수십 년간 이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업적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선진화와 산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광복 당시 연구인력이 태부족이었고, 이후 반세기 동안 고등교육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사립대학의 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념하였으며, 더불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곧 연구인력의 수적·질적 향상을 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대학 또는 연구소 어느 곳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연구업적은 논문, 저서, 학술활동, 수상 및 특허 등을 대표적으로 고려한다. 논문의 경우, 국제적 학술지, 국내 학술지, 교내 또는 연구소 학술지 등으로 분류되고, 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적 학술저서, 국내 학술저서, 연구보고서, 기타 저서 등으로 나눠져서 평가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지표를 연구업적, 교육·사회·봉사부문을 대표적으로 삼고 있고,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 대학을 막론하고 이 가운데 연구업적에 대다수 대학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연구업적을 구성하

는 요소 가운데 논문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하는 바를 피력하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연구논문게재 학술지는 대략 1,4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논문집과 연구소 논문집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연구인력의 증가와 연구분야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주변 학술단체의 새로운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이고, 이로 말미암아 지난 수년 간 다수의 학회 또는 연구회가 새로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중에는 회원수, 학술지 발간, 재정적 운영 면에서 이미 기반을 다진 단체도 있지만, 그 수는 아주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세한 학술단체들이 회원 배가운동 또는 특별 학술세미나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며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을 여기 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다가오는 세기는 정보화를 기초로 한 지식기반사회의 틀로 견고하게 다져진 국가들이 국제경쟁력에 원만히 대처하리라고 믿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환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지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다름 아닌 학술연구지원 사업이 아닌가 한다. 교육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서를 비롯하여 산하 여러 학술재단에

서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 학술지원사업 자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거국적인 사업들을 눈앞에 놓고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싶다. 문제는 어떤 연구과제를 어디서 누가 맡아 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이제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합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보완 내지는 뒷받침하는 주요 판단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연구논문의 질과 편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질적 기준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 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사회과학논문색인)에 등재된 논문으로 정하고 있음을 흔히 접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지난 수년 간 SCI에 등재한 논문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11,514건에 이르렀고, 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논문의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몇몇 대학, 소수 지방 국립대, 포항공대, 그리고 KAIST에서 비롯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인력들 대다수가 국내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들 논문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학술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 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이 과학 문명에 늦게 눈이 뜨이고 산업화가 뒤늦게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보·산업화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몇몇 첨단 과학기술은 세계 일류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SCI와 관련한 몇 가지 수치를 보면서 비교하여 보자. SCI에는 세계에서 총 3천3백여 종의 학술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미국이 천4백여 종, 영국 7백여 종, 독일 3백여 종, 프랑스 백2십여 종, 러시아와 일본이 각 70여 종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학회 학술지 3종과 연구

소 논문지(ETRI)를 포함 4종이 전부이다. 나머지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및 기타 논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술지의 질적 수준은 엄정한 평가와 관리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수준 있는 학술지의 가치와 기여를 고려하여 등급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학회지 가운데 오직 60종 가까이만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SCI에 등재된 논문의 수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내 학술지 및 기타 논문집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국내 학문연구기관에서 이를 따를 수 있도록 부가적인 행정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여야 하겠다. 이로 말미암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은 곧 한국에서 SCI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와 등록되는 학술지의 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를 실시하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연구논문일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 비하여 논문의 수가 해를 거듭하며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빨리 국내에서도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한 선행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SCI의 의미와 역할을 같이하는 국내 과학기술논문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행할 것을 진심으로 제언한다. **한영**

홍윤기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기주대학교(USC)에서 OR 석사, 산업시스템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노스리지) 경영과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및 대학본부 연구기획처장으로 재직중이다. 한성대 전자계산소장,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총무이사, 학술이사를 역임하였고, 주요 관심 연구분야로는 '국방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분석', '시뮬레이션 출력자료 통계 분석', HLA(High Level Architecture) in Simulation' 등이 있으며,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